

# 대화방식에서의 성차이: 대학생들 중심으로

## Gender Differences in Conversational Styles of Students

순천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소비자·가족아동학전공  
부교수 김 성 희

Division of Living Science Consumer and Family-Child Studies, Suncheon National Univ.  
Associate Prof. : Kim, Sung-Hee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gender differences in conversational styles of students. This research based on quantitative survey and qualitative observation. The quantitative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 from 708 respondents who were college students and resided in Suncheon. Statistical methods for the data analysis were frequencies, t-test. The cases of observation were 21.

As a result, gender differences were founded in lots of conversational styles. Women showed more tendencies than men in communications to listen, to make relationships, to take care of others, to express intimacy and to make private conversation. Men tended to dominate others, to show off capacities and to make public conversation. This gender differences in conversational styles were related to sex role and major studies. From this results it was proposed that education on gender differences in conversational styles should be developed for students to improve their communication skills and to adapt their changing sex role.

▲주요어(Key Words) : 성차이(gender difference), 대화방식(conversational style), 의사소통(communication), 성방언(genderlect)

### 1. 서 론

의사소통에서의 갈등은 가치관의 차이, 세대차이 등에 의해 일어날 수 있지만 성의 차이에 의해서도 쉽게 일어난다. 특히 이성교제나 부부관계에서의 갈등은 남녀의 대화의 차이에서 올 가능성이 높다.

많은 연구자들(Tannen, 1986, 1990; Pease & Pease, 2000, 2002; Gray, 1992, 1994 등)은 남녀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갈등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똑같은 욕구를 갖고 있고 같은 방식으로 대화한다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원만한 부부관계와 이성교제를 위해서는 남녀간에 성에 따른 대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성차에 관한 연구는 관점에 따라 어느 한쪽 성이 다른 성에

비해 사회적으로 우월하다고 보아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성차별(discrimination)에 관한 연구와 남녀간에는 생물학적으로 구분되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아 이해를 요구하는 성차이(difference)에 관한 연구가 있다.

성차이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이후 남녀의 차이가 의학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연구되면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전까지는 남녀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학습과 같은 사회적 요인이 주로 관심을 끌어왔지만 이후로는 호르몬이나 뇌의 작용과 같은 생물학적 요인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런 성차이 연구의 영향으로 언어연구에서도 최근에는 생물학적 문화적 차이로 생기는 남녀간의 언어 차이가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성차이 연구자들은 남녀는 서로 다른 규칙에 따라 누가 더 옳지도 그르지도 않은 가치를 지니고 다른 세계에서 살아간다고 말한다. 이들은 남녀의 차이를 성장과정에서 겪는 두뇌 구조의 차이나 습성의 차이로 설명하므로,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려 들

\* 주 저 자 : 김성희 (E-mail : ksh@sunchon.ac.kr)

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고 보는 성차별적 관점과는 근본적으로 접근법이 다르다. 따라서 갈등을 예방하는 방법도 차별적 관점에서는 사회구조와 제도적 차원에서 차별의 해소에 역점을 두지만 차이의 입장에서는 이해의 증진 교육에 역점을 둔다.

현재의 사회적 상황을 보면 양성평등을 지향하고 성평등 의식은 높아짐에 따라 남성지배가 약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불화로 이혼은 증가하고 있다. 남녀간에는 차별의 문제 외에 불평등으로 설명되지 않는 또 다른 갈등요인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을 불리한 화자라는 차별적 입장이 아닌 남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성차이의 관점에서 남녀간의 대화방식은 어떻게 다른지 여러 차원과 구체적 상황에서 그 차이를 조사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성차이 전반에 대한 인식과 대화방식에 차이를 가져오는 관련 변인도 조사해보고자 한다.

Clinebell(1991)은 의사소통은 관계유지를 위한 수단이고 의사소통의 질은 관계의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많은 연구에서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결혼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조사되고 있다(김선우·김태현, 2003; 임승락, 1998 등). 이성교제 중인 남녀에게도 의사소통이 역시 관계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정현숙, 2004).

이런 중요성으로부터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의사소통 기술 및 친밀감 향상에 관한 내용을 삽입하고 있지만 (방현주·이기숙, 2002), 경청과 자기표현의 기법이 중심이고 남녀의 대화 차이에 관한 교육은 아직 관심의 대상되지 못하고 있다. 이성교제를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에서 남녀간 의사소통의 차이를 교육시키는 것이 개발되기는 하였으나(이재림·옥선화·이경희, 2002), 남녀의 차이에 관한 이론이 외국의 사례연구에 기초한 것이어서 사회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언어 및 대화에서의 성차이에 관한 연구는 언어학 분야에서 Tannen(1990)을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들의 연구를 인용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몇몇 언어학자들이 어휘와 형태, 표준어, 몇몇 차원에서의 남녀의 차이를 연구하고 있으나 남녀관계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대화를 분석·비교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이 문제예방의 차원에서 결혼 전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대화방식의 차이를 연구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성교제 및 결혼준비 교육에 대한 요구를 조사한 이재림·옥선화·이경희(2002)의 연구에 따르면 '남녀 차이에 대한 이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의사소통 면에서도 남녀 차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준비교육과 이성교제 교육에서 남녀차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결혼 전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남녀의 차이를 조사하고자 한다. 언어의 사용은 성별 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 연령 등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상황을 통제하려는 목적에서 사회적 지위와 연령이 비슷한 대학생들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연구결과는 남녀간의 대화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를 결혼과 이성교제 전에 원천적으로 인식시켜 서로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개인과 가정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데 기여하리라고 본다. 또한 남자와 여자의 양성지향에 따른 성역할의 변화는 대화방식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양성의 언어를 습득케하여 역할변화에 적응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 II. 관련 연구 고찰

### 1. 언어와 성에 관한 연구 동향

언어에 이질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서 성에 관심을 갖는 대표적인 분야는 사회언어학이다. 사회언어학에서는 성별, 계층, 나이, 인종 등이 언어 사용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이에 의해 언어에 어떤 차이가 유발되는지를 연구한다. 특히 사회방언학자들은 성에 의한 언어 차이를 성별어 또는 성별 방언, 성방언(sex dialect, genderlect)이라 하여 연구하고 있다.

사회방언학분야에서 초기 여성의 언어는 일탈의 관점에서 남성의 언어를 기준으로 어떻게 다른가가 연구되었다. 남성의 언어는 표준으로 간주되었고 여성이 남성과 어떻게 왜 다른가의 문제를 설명하는데 집중하였다.

대표적으로 Jespersen(1922)은 'Language'라는 저서에서 'The Women'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언어적 습관을 형태론(morphology)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남녀의 어휘의 차이를 보면 여성은 세련되고 완곡하고 과장된 표현을 선호하고 남성은 속어나 혁신적인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그리고 여성은 간접적이고 은유적인 세련된 표현을 선호하고 조악한 표현을 멀리함으로써 영향력을 확보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성어에 대한 편견과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성별에 따른 언어 구조 연구에 토대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최용선, 2001).

Fischer(1958)는 소녀들이 소년들보다 접미사 변형(-ing)의 비표준변이형(in)을 비교적 덜 사용하여 여자가 남자보다 더 세련되고 공손한 표준어식 발음을 선호한다는 것을 밝혔다. Labov(1966)는 발음에서 여성 화자들은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변이형을 사용하는 반면, 남성 화자들은 사회적으로 비선호되는 변이형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조사하였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언어와 성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페미니스트의 영향으로 권력의 소유 여부와 관련된 언어의 성별간의 차이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Key(1970)와 Lakoff(1975)에 의해 촉발되고 Cameron(1985)등이 연구한 페미니스트 사회언어학은 여성이 겪는 억압구조와 여성어의 상관성을 해석하려는 관점에서 성차별, 성별언어를 다루었다.

Lakoff(1975)는 언어의 성경향적 지표에서 여성어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애매한 어법 사용, 과잉공손형, 부가의 문문, 강조어휘, 의미없는 형용사, 과잉발음, 유머감각부족, 전문적 색채의 구별어, 서술적 문맥에서의 의문형 억양, 'damn'과 같은 강한 간투사(expletives)를 사용하지 않는 등 여성어에는 불확신과 자신감의 결여와 같은 여성의 심리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의 사용은 여성이 가지는 종속적 위치에서 생겨나는 여성다움의 규범과 관련있다고 주장한다. 여성들에게는 자신을 강하게 나타낼 수 있는 표현 수단이 없고 사소한 것들에 대한 표현만이 허용됨으로써 여성 스스로 주체성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 여성어가 여성의 개인적 주체성을 잠식하고 있다고 말한다.

Lakoff의 가설을 토대로 Kuett(1981)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고정관념화된 남녀의 언어사용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남성에게 바람직한 언어 특징으로는 낮은 목소리, 전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 표현, 유머감각, 욕설의 사용, 강한 발음, 사소한 주제의 회피이고, 여성에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고정관념화된 언어 특징은 매우 부드러운 말씨, 넓은 음조 영역, 자기 개방적 언어, 손과 안면의 많은 사용, 말하면서 미소짓기, 공손한 말씨, 명확히 발음하기, 자세히 말하기, 청취자에게 관심 갖기, 말에 열중하기, 예의바른 말씨, 우호적인 말씨, 수다스럽기, 단호적인 말 사용하지 않기, 명령조로 말하지 않기, 허풍스럽게 말하지 않기, 지배적으로 말하지 않기, 화를 감추며 말하기이다.

페미니스트 언어학에서는 이러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여성적 언어의 특징이 생기게 되는 배경을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한다(최용선, 2001). 첫번째는 결혼 모델로 여성은 어린 시절 성역할 사회화 과정 때문에 불리한 화자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지배모델로 여성은 남성과 교류할 때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위치에 놓이며 이런 남성지배와 여성 종속의 남녀의 사회적 지위가 언어사용의 양식에 명백히 반영된다고 본다. 페미니스트 언어학에서 여성적 언어를 설명하는 세 번째 관점은 차이 모델이다. 남성과 여성은 불평등한 위치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의 언어 문화에 이방인으로서 대칭적인 위치에 놓인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남녀가 서로의 언어를 이해한다면 대화방식의 차이에서 생겨나는 오해는 쉽게 파악되고 오해를 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인식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성별의 분리는 대화 목표와 스타일에서 뚜렷한 차이를 만든다고 보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Tannen(1986)은 남녀는 각각 다르게 태어나고 다르게 양육되고 다르게 성장한 결과 다르게 말한다고 주장한다. 즉 성장과정에서의 차이는 필연적으로 말하는 차이를 동반하여 서로 다르게 말하며 서로 다른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남자는 독립성의 욕구, 여자는 연관성과 유대감의 욕구가 강해 남자는 원하는 것을 말해야 한다는 기대를 갖게 되고 여자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한다는 기대를 갖게된다고 한다. 이런 욕

구와 기대의 차이로 인해 여자들은 간접적인 표현인 메타메시지를 자주 사용하는 반면 남자들은 힘의 표현을 선호하게 되어 서로 다른 스타일로 인해 오해가 생기게 된다. 오해를 대화로써 해결하려하나 점점 더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미궁에 빠져버리므로 자신의 스타일을 이해하고, 이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충고한다.

언어학에서의 연구동향으로 볼 때 여성언어에 관한 연구는 형태론적 언어분석에서 대화분석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고 성차에 관해서는 성차별적 연구에서 성차이 연구로 그 관점이 옮겨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대화와 성차이에 관한 연구 고찰

최근 언어에서의 성차이를 연구하는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Tannen(1986, 1990)을 비롯하여 Pease & Pease(2000, 2002), Gray(1992, 1994)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주로 남녀가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갈등을 분석한다.

Tannen은 1990년 출간된 'You Just Don't Understand'라는 저서에서 남녀는 대화스타일의 차이로 인해 서로 대화의 단절을 경험한다고 주장한다. 남녀는 자기 다른 문화를 가져 자기 자신의 렌즈로 상대의 언어를 해석하여 이것이 종종 상황을 왜곡시킨다는 주장이다. 남성은 지위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 독립에 관심을 집중하고 여성은 친근에 관심을 갖게 되어 대화방식의 차이를 낳는다고 본다. 대화의 목적도 여성은 대등한 관계에서 친교를 위한 것이고 남성은 독립을 보존하려는 의도에서 우위의 자리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여성은 사적인 대화를 많이 하고 남성은 공적인 대화를 많이 하며 남자들은 지식을 과시하려 하고 여자들은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런 차이로 남녀는 갈등에 빠지게 되는데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면 관계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Tannen은 남녀의 대화 스타일이 둘 다 타당하고 단순히 다를 뿐이라고 본다. 그래서 이런 차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남녀간에 오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충고한다.

Pease & Pease(2000)는 남자는 먹이 추적자로서 진화를 해오고 여자는 등지수호자로서 진화를 해오면서 두뇌의 구조와 호르몬에 차이가 생기고 이로 인해 사용하는 언어의 의미가 다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여성은 등지를 보살피는 양육자로서 의사소통에 익숙하고 남자는 먹이를 사냥하는 사람으로서 의사소통에 익숙치 않으며, 남자는 경쟁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여 단어의 정의와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나 여자는 사랑받기 위해 말을 하여 단어의 정의는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성은 몸짓 언어에 대한 의존이 높고, 대화는 인간관계의 구축을 위해 사용한다고 한다.

또한 Pease & Pease(2002)는 남성과 여성은 원천적으로 다른 존재로 남자의 두뇌는 해결지향적이고 여자의 두뇌는 과정

지향적이어서 여자는 문제가 있으면 말로 표현하고 싶어하는 반면 남자는 침묵한다고 한다. 여자는 말을 잘하고 많이 하나 남자는 말을 잘하지 못하고, 여자들은 과장된 어법을 쓰고 간접 화법을 사용하며 사랑과 보호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 정서적 협박을 사용한다고 한다. 여자의 언어는 남자의 언어와 그 의미가 다르므로 남성은 여성의 말의 숨은 동기와 의미의 차이를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한다. 반면 남자들은 거짓말을 하고 조언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며 농담을 나약한 감정을 드러내는 의사소통 수단으로 보므로 여성은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Gray(1992)는 남녀는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사랑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다르며 언어도 달라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것과 같다고 말한다. 여자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것에 관심을 두는 반면 남자는 업적과 능력을 인정받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고, 언어 면에서 남녀는 같은 어휘를 사용해도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하며, 여자들은 과장과 은유, 막연한 표현으로 감정을 전달하나 남자들은 이런 표현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잘못 해석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1994년 연구에서 Gray는 남자와 여자는 두뇌 구조가 달라 차이가 생긴다고 보는데, 남자는 행동 영역이 여자는 언어 영역이 우선적으로 발달해서 남자는 입을 다문 채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짙은 반면, 여자는 먼저 문제를 말한 후에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원하는 것을 해결하는 방식도 달라 여자는 대화를 통해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남자는 여자로부터 인정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킨다고 한다. 여성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남자는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여자의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며, 여자의 감정을 무시해 버려서 갈등을 일으킨다고 한다. 여자는 남자와 대화할 때 남자에게 감사하고 용기를 주고 혼자만의 시간을 원한다면 방해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충고한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까지는 언어의 성차별적 측면이 많이 연구되어왔다. 국어학적 논의들이 남성어와 다른 여성어의 성차별적 측면을 연구하거나 어법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부각시켰다. 예를 들면 강주현(1995)은 우리말에 나타난 성차별적 구조를 호칭어, 한자, 속담, 민요, 대중 가요 속에서 분석하였다. 성차별적 언어의 특성은 여성학분야에서도 연구되어 여성개발원(1996)에서는 성 차별적 언어 사용 실태를 인터뷰, 좌담회와 신문기사 채록을 통해 조사하여 가정과 직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성 차별적 언어의 실상을 정리하고 성차별적 언어 사용을 시정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언어에서의 성차이에 관한 연구는 성차별 연구와 분화시켜 연구하는 것이 남녀간 상호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므로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있지만 혼합되어 연구되는 경향이 있다(민현식, 1996). 유성곤(1999)은 여성이 남성보다 표준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성차이를 밝혀냈다. 남성보다 여성에게 표준어 사용이 많은 것은 표준어가 품위를 추구함과 동시에 경제 환경

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회적 언어로 사용되기 때문으로 보았다.

성차이의 관점에서 남녀의 대화를 분석한 연구로는 최용선(1996)의 연구가 있다. 그는 Tannen(1990)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대학졸업자 남성과 여성 각 20명을 대상으로 남녀의 대화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남녀 모두 각기 다른 대화스타일을 보인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자는 100%, 여자는 95%였다. 남자는 대화에서 경쟁적 대화스타일을 보인다는 것에 남성이 75%, 여성이 90% 찬성하였다. 여성은 친교와 유대감에 근거한 협동적 대화스타일을 사용한다는 것에는 남성이 100%, 여성이 85% 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Tannen의 주장과 일치하여 남성은 대체로 지배적이고 독립적이며 경쟁적이고 여성은 협력적이고 복종적 친화적인 사회심리가 대화방식에 반영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으나, 조사내용이 매우 단순하였고 조사대상자수도 일반화하기에는 불충분했다.

김규현, 서경희(1996)는 평가와 이해확인이라는 일상의 두 행위에서 남녀의 대화구조가 어떻게 상이하게 전개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유학생 부부 및 친구간의 5시간 정도에 걸친 대면대화를 분석한 결과, 여성은 대화자에게 협조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유대감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평가를 주고받는 패턴을 보인 반면 남성은 정보적인 면에 중점을 두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시각에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일반화를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이 외에 다양한 대화방식에서의 성차이를 분석하거나 Tannen(1986, 1990), 이나 Pease & Pease(2000, 2002), Gray(1992, 1994) 등의 연구를 국내 언어상황에서 검증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annen(1986, 1990), Gray(1992, 1994)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여성과 남성의 대화방식 차이라고 언급되는 해결책 제시 방식과 들어주기 방식, 유대감 중시 방식과 독립성 중시 방식, 지배하기 방식과 배려하기 방식, 능력의 과시 방식과 친밀감의 표현 방식, 공격대화 방식과 사적대화 방식, 언어의 의미 차이와 같은 여러 상황에서의 남녀의 대화방식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 3. 언어 및 대화와 관련된 요인

Labov(1966)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계층과 성이 언어 사용과 관련이 있었다. 사회경제적 계급이 낮을수록 표준적인 'that'가 아니라 비표준적 발음인 'dat'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여성화자들은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변이형을 사용하는 반면, 남성화자들은 사회적으로 비선호되는 변이형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Milroy(1980)는 언어 패턴은 사회계층이 아닌 사회적 교류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연령이나 성별, 사회계층과 같은 요인들이 공존해도 개인과 지역사회간에 교류망 결속이 강하게 이루어질수록 그 개인의 언어도 그만큼 더 지역사회의 규범을 따르게 된다고 주장한다. 즉 남녀가 사용하는 고유언어

형태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결속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밀접한 조직망을 가진 지역사람들은 도시사람들보다 더 토박이말의 형태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O'Barr & Atkins(1980)에 의하면 사회적 지위도 언어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 힘없는 남자로서 법정에서 선 죄인과 증인들, 힘있는 여성으로서 여판사와 여사장을 대상으로 언어를 분석하여 남성과 여성이 아닌 힘없는 자와 힘있는 자 사이에 언어적 특징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즉 지위가 높은 여판사, 여교수, 여의사의 언어는 강하고, 확신이 있으며, 공개적이고 분명하고 의연한 특징을 보여서 출세한 남성들의 언어와 같은 반면 힘없는 남성의 언어는 여성의 언어 특성과 똑같이 나타나고 있었다.

Lu(1993)의 연구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적 요인이 언어사용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법정이라는 상황에서 남녀 변호사의 언어스타일을 분석하여 여성변호사는 남성변호사보다 더 단언적이고 강력한 대화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성별에 따른 언어 차이의 관찰은 대화의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송경숙(2002)은 논쟁과 토론의 담화를 분석하여 성, 연령, 사회적 지위 등의 사회적 요소가 언어에 반영된다는 것을 조사하였다. 즉 한국 남성들간의 논쟁은 반대의사가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주로 격양된 양상으로 나타나나 한국 여성들간의 반대의사 표현은 완화되고 비대립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남성간의 논쟁이 대립적으로 표현되는 경우는 연상이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남성이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고자 하는 경우였다. 반면, 논쟁이 완화될 경우는 연상이면서 높은 위치의 여성이 남성에게 반대의사 표현을 할 경우이거나 여성과 남성 대화자가 농담조로 반대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였다. 남성과 여성간의 언어사용에는 성, 연령, 사회적 지위와 같은 사회문화적요소가 반영된다는 것이 지지되었다.

Tannen(1990)의 연구에서는 대화 스타일의 차이가 생겨나게 된 남녀의 사회심리적인 특징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대체로 지배적, 독립적, 경쟁적이고 여성은 남성보다 협력적, 의존적, 친화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사회심리적 변인으로 성역할태도가 언어사용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의 연구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성별, 연령, 사회적 지위, 거주지역, 대화의 상황, 성역할태도가 대화방식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거주지역을 통제하고자 전라남도 순천에서 거주하는 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지위도 대학생인자로 제한하여 통제하였다. 학생들의 언어생활에 영향을 주는 공통적 상황적 요인으로는 전공을 조사내용에 포함하였다. 대학생은 매우 동질적인 연령대에 속해서 연령도 어느 정도 통제되었다고 보나 학년간의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 이를 조사에 포함하고 성역할태도를 관련변인으로 조사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전라남도 순천시에 거주하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화방식에 있어 차이를 조사하였다. 조사는 설문조사 외에 양적 조사로 나타내기 어려운 대화시의 구체적 행동을 기술하기 위해 질적 조사도 병행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한 예비조사는 남녀 각 50명에게 실시하였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을 구성하여 본 조사는 2003년 8월 28일부터 9월 4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800부를 배부하여 부실 기재된 설문지를 제외한 총 708부를 분석하였다.

질적 조사는 2003년 8월 28일 순천대 교양과정 수강생 101명에게 언어생활에서의 성차이에 관해 사례를 관찰하게 하여 레포트를 제출하게 한 것 중,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양적 경향을 현실감있게 보여주는 가장 적절한 사례를 2사례씩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서 보듯이 남자가 388명으로 54.8%, 여자가 320명으로 45.2%를 차지하였다. 학년은 1학년이 43.1%, 2학년이 28.7%, 3학년 17.4%, 4학년 10.8%였다. 전공분야는 인문계열이 31.5%, 자연계열 62.4%, 예체능계열 6.1%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708)

	구 분	빈도(%)
성별	남자	388(54.8)
	여자	320(45.2)
학년	1학년	305(43.1)
	2학년	203(28.7)
	3학년	123(17.4)
	4학년	77(10.8)
전공분야	인문사회계열	223(31.5)
	자연계열	442(62.4)
	예체능계열	44(6.1)

#### 2. 연구문제 및 조사도구

#####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성차이에 대한 전반적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남녀는 대화 방식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대화방식에서의 성차이와 관련된 변인은 무엇인가?

##### 2) 조사도구

###### (1) 성차이에 대한 전반적 인식

성차이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Pease & Pease (2000), Tannen(1990)의 남녀의 차이에 대한 견해를 바탕으로

사고 영역과 대화하는 방식에서 남녀는 어느 정도 다르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약간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4점 리커트(Likert)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각각에 4점에서부터 1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남녀간에는 차이가 크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문항간 상관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는 .75였다.

## (2) 대화방식

언어연구에서는 주로 어휘, 발음, 어법과 같은 형태론적 차이를 문제삼는다. 그러나 대화에 관한 연구에서는 화자들간의 연관성, 독립성, 지배성 등의 욕구와 선호, 기대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차이가 대화 스타일의 차이로 나타난다고 보고 이를 문제삼는다(Tannen, 1986).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욕구와 선호, 기대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대화 스타일 즉 대화방식을 조사한다.

대화방식의 구체적 내용은 Tannen(1986, 1990)과 Gray(1992, 1994)의 연구와 분석내용을 참조하여 남녀의 대화는 해결책 제시와 들어주기 방식, 연관성 중시와 독립성 중시 방식, 지배하기와 배려하기 방식, 능력의 과시와 친밀감의 표현 방식, 공격 대화와 사적 방식, 언어의 의미 사용과 같은 여러 차원에서 차이가 난다고 보고, 각각의 차원에 대해 구체적 상황을 2문항과 2문항, 3문항과 3문항, 5문항과 3문항, 7문항과 7문항, 8문항과 4문항, 3문항을 구성하여 총 47개 문항을 작성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약간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4점 리커트(Likert)척도로 측정하였으며 1점에서부터 4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였다. 점수가 적을수록 선호도가 높고 행동의 경향이 많음을 의미한다. 문항간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는 .77이었다.

Tannen(1986, 1990)과 Gray(1992, 1994)에 의하면 남자는 대화시 해결책을 제시하고 독립성을 중시하며 상대방을 지배하기 좋아하고 능력을 과시하며 공격적인 대화를 좋아하는 방식을 좋아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자는 여자보다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해주길 좋아하고, 상대가 청하지 않아도 조언해주길 좋아하며 문제가 있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 한다. 모임에서는 어울려 말하기보다는 침묵하기 좋아하고 누군가로부터 지시받는 것을 싫어한다. 상대방이 자신을 지배하려하는 게 아닌가에 신경을 쓰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는 가능한 어려운 말을 써서 제압하려 한다. 대화할 때 상대방을 응시하지 않고 남의 비위를 거스르는 것에 상관치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대항할 때 침묵을 이용한다.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친절함을 보이고 자신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 과시하며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기 좋아한다. 오랫동안 소식을 전하지 않아도 친한 친구라고 말하고 풍부한 유머로 모임에서 중심적 인물이 되고 싶어한다. 남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을 좋아한다. 사적인 자리보다는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공식적 대화석에서 의견을 제시하기 좋아한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남만큼 알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잠담이나 수다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용건이 없으면 친구에게 전화하지 않고 친구에게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감정을 표현하기 보다는 억제하는 편이고 사회적 이슈에 대해 논쟁하기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여성은 들어주기를 좋아하고 유대감을 중시하며 상대방을 배려하고 친밀감을 표현하며 사적 대화 방식을 선호하는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는 여성은 대화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좋아하고 대답하기보다 질문하기를 좋아한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묻기 좋아하고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을 청하기 좋아하며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신경써주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신경을 쓰며 공격적인 인상을 줄까 조심한다. 상대방이 모르는 것을 말할 때 창피함을 갖지 않게 신경쓴다.

이런 주장을 근거로 문항 점수를 합해서 총계가 적을수록 남성적 대화방식, 많을수록 여성적 대화방식으로 평가하였다.

## (3) 성역할태도

성역할태도란 남성, 여성에게 기대되는 행동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말한다. 전통적인 성고정관념이나 여성 또는 남성의 역할, 특성에 대한 개인의 태도가 성역할태도에 나타나게 된다(임정빈·정혜성, 1997).

본 연구에서 성역할태도는 Bem(1974)의 성역할 검사, Tannen(1990)의 연구, Gray(1992)의 연구를 참고로 독립성, 지배성, 경쟁성, 공격성, 성취성을 묻는 5문항을 작성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약간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4점 리커트(Likert)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각각에 1점에서부터 4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였다. 점수가 낮을수록 매우 남성적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매우 여성적으로 평가하였다. Cronbach's Alpha는 .75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성차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조사대상자들은 사고영역에서 대체로 남녀는 다르다고 생각하였다. Tannen(1986, 1990), Pease & Pease(2000, 2002), Gray(1994)의 주장처럼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대체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았다.

대화방식에 남녀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가에 대해서도 대체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사고영역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낮았다. Tannen(1990), Pease & Pease(2000), Gray(1994)의 주장처럼 사고의 차이가 대화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이 남자보다 생각하는 사고영역에 대한 인식이 남자보다 높으면서도 대화방식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는 남자와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여자에게 더 잘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진다.

<표 2> 성차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전체			성별			t
	N	M(SD)	paired-t	N	M(SD)	t	
생각하는 사고 영역이 다르다	708	3.18 (.70)	7.75***	남	388	3.09 (.73)	3.97***
				여	320	3.30 (.64)	
대화하는 방식이 다르다	708	2.96 (.75)		남	388	2.97 (.76)	-.43
				여	320	2.95 (.74)	

\*\*\*p<.001

## 2. 남녀의 대화방식의 차이

### 1) 해결책 제시와 들어주기 방식에서의 차이

조사대상 남녀는 대화방식 중 해결책을 제시하기 좋아하는 대화방식과 들어주기 좋아하는 대화방식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화방식보다는 들어주는 대화 방식을 더 좋아하였다 <표 3>.

성에 따라서는 Tannen(1986, 1990)과 Gray(1992, 1994)의 주장과 일치하게 여자가 남자보다 들어주기 대화방식을 더 좋아하였다. 남자가 여자보다 들어주기를 더 좋아하는 상황은 없었다. 여자가 남자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더 좋아하였지만 보다 적극적인 들어주기를 나타내는 상황인 대답하기보다 질문하기 좋아하는가에서는 남녀간에 차이가 없었다 <표 4>.

<표 3> 해결책 제시와 들어주기 방식에서의 차이

	사례수 (N)	평균 (M)	표준편차 (SD)	paired t값
해결책 제시 방식	708	2.46	.68	5.99***
들어주기 방식	708	2.30	.53	

\*\*\*p<.001

Tannen(1986, 1990)과 Gray(1992, 1994)는 남자는 해결책 제시의 대화 방식을 선호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런 방식과 관련된 상황인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해주길 좋아하는가와 상대가 청하지 않아도 조언해주기 좋아하는가에 남녀간 차이가 없었다. 김규현·서경희(1996)의 대화분석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해결책 제시의 대화방식을 선호하지 않았다.

<표 4> 해결책 제시와 들어주기 방식에서의 성차이 (남자 N=388, 여자 N=320)

대화 방식	구체적 상황	평균 (M)	표준편차 (SD)	t 값
해결책 제시 방식	대화시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해주길 좋아한다	남 2.36	.82	.90
		여 2.31	.78	
	대화시 상대가 청하지 않아도 조언해주길 좋아한다	남 2.55	.83	-1.52
		여 2.64	.82	
들어주기 방식	대화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좋아한다	남 2.00	.76	3.45***
		여 1.81	.70	
	대화할 때 대답하기보다 질문하기를 좋아한다	남 2.66	.80	-.68
		여 2.70	.69	

\*\*\*p<.001

이처럼 본 연구에서 남성이 해결책 제시 방식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다른 연구들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미혼의 청소년들을 조사하여, 개인주의 성향이 높은 청소년들이 타인의 문제에 개입하기 싫어하는 경향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여성이 들어주기를 좋아하고 남성이 들어주기를 좋아하지 않는 상황은 다음의 관찰 사례에서 잘 엿볼 수 있다.

사례 1 : “지갑을 잃어버린 일이 있었다.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했다. 그러자 여자친구들은 괜찮다며 자기도 예전에 잃어버린 적이 있었다고 위로를 했다. 남자친구는 왜 울상인지 묻더니 지갑에 소중한 물건이 별로 없었으면 그만 걱정하고 새로 하나 사라고 했다. 순간 기분이 나빠 화를 내고 그 자리를 벗어나 버렸다.”

사례 2 : “전화통화할 때 나는 친한 친구들과 특별한 목적없이 전화를 걸어 1시간 넘게 통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오빠가 통화하는 것을 들어보면, 시간약속, 모르는 사항에 대한 질문 등 대화 목적이 매우 뚜렷하다. 여자친구들에게 어떤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같이 걱정거리를 공유해주는 걸로 그치지만 같은 문제에 대해 오빠나 아빠에게 얘기하면 한참 생각한 후 해결책을 제시하곤 한다.”

### 2) 연관성 중시와 독립성 중시 방식에서의 차이

조사대상자들은 전체적으로 독립성을 중시하는 대화 방식보다 연관성을 중시하는 대화방식을 좋아하였다 <표 5>.

<표 5> 연관성 중시와 독립성 중시 방식에서의 차이

	사례수 (N)	평균 (M)	표준편차 (SD)	paired t값
연관성 중시 방식	708	2.23	.53	-6.366***
독립성 중시 방식	708	2.43	.50	

\*\*\*p<.001

남녀간의 차이는 <표 6>에서 보듯이 Tannen(1986, 1990), Gray(1992, 1994)의 주장과 일치하게 여자는 연관성을 중시하는 상황에서 남자보다 더 그러하다고 하였고, 남자는 독립성을 중시하는 상황에서 여자보다 더 그러하다고 하였다.

여자가 남자보다 연관성을 중시하는 구체적 상황을 보면, 대화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묻는 것을 좋아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도움을 청하기 좋아하고, 자신에게 신경써주는 대화를 좋아하였다.

남자는 여자보다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며, 모임에서는 어울려 말하기보다는 침묵 지키기를 좋아하였다. 그러나 Tannen(1990), Gray(1992)의 주장과는 다르게 대화시 누군가로부터 지시받는 것을 싫어하는 것에 남자는 여자와 차이가 없었다.

<표 6> 연관성 중시와 독립성 중시에서의 성차이

(남자 N=388, 여자 N=320)

대화 방식	구체적 상황	성	평균 (M)	표준 편차 (SD)	t 값
연관성 중시 방식	대화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묻는 것을 좋아한다	남	2.23	.76	2.15*
		여	2.11	.69	
	대화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는 도움을 청하는 것을 좋아한다	남	2.51	.80	4.17***
		여	2.28	.70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신경써주는 대화를 좋아한다	남	2.21	.82	3.41***
		여	2.00	.80	
독립성 중시 방식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해결한다	남	2.20	.77	-4.41***
		여	2.46	.77	
	모임에서는 어울려 말하기보다는 침묵하는 것이 좋다	남	2.73	.88	-3.25***
		여	2.94	.83	
	대화시 누군가로부터 지시 받는 것을 싫어한다	남	2.14	.85	-.13
		여	2.15	.83	

\*p<.05, \*\*\*p<.001

남자가 여자보다 대화에서 독립성을 중시하고 여자가 연관성을 중시하는 상황은 다음의 관찰 사례에서 엿볼 수 있다.

사례 1 : “한 남자친구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앉아 있어 나는 가서 ‘무슨 일 있어?’라고 걱정스레 물어보았다. 그 친구는 ‘아니야’ 한마디를 던지고는 고개를 돌렸다. 나는 그 때 엄청나게 기분이 상했다. 걱정되어서 그런 거였는데 귀찮은듯이 ‘아니야’라고 말한 것이다. 나중에 들어보니 귀찮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혼자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싶어서 그랬단다.”

사례 2 : “영화를 보러 갈 때, 여자는 ‘우리 00보는게 어떨까?’라고 묻는데 비해 남자는 ‘00보러 가자’라고 말한다. 여자는 뭔가를 결정할 때 누군가의 허락을 받기를

원하고 남의 의사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 반면 남자는 자신의 의견을 혼자 결정해 확실히 말한다.”

3) 지배하기와 배려하기 방식에서의 차이

<표 7>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응답자들은 대화시 상대방을 지배하는 방식보다 배려하는 방식을 선호하였다.

<표 7> 지배하기와 배려하기 방식에서의 차이

	사례수 (N)	평균 (M)	표준편차 (SD)	paired t값
지배하기 방식	708	3.01	.46	37.80***
배려하기 방식	708	2.05	.49	

\*\*\*p<.001

남녀간 응답차이는 Tannen(1990)과 Gray(1992)가 주장하는 것처럼 남자는 여자보다 상대방을 지배하는 대화방식을 선호하였다. 여자가 남자보다 지배하기 대화방식을 좋아하는 상황은 없었다.

구체적 상황을 보면 남자는 여자보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는 가능한 어려운 말을 써서 제압하고, 상대방을 응시하지 않으며, 남의 비위를 거스르는 말에 상관치 않았다. 그러나 상대방이 나를 지배하려는 게 아닌가에 신경쓰고 다른 사람에게 대항할 때 침묵을 이용하는 지배적 상황에는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배려하기와 관련된 상황에서도 Tannen(1990)과 Gray(1992)가 주장하는 것처럼 여자가 남자보다 배려하기 방식을 더 선호하였다. 남자가 여자보다 더 배려를 선호하는 상황은 없었다. 구체적 상황을 보면 상대방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여자가 남자보다 더 신경을 썼다. 여성은 대화자에게 협조적으로 반응하여 유대감을 조성한다는 김규현·서경희(1996)의 대화 분석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공격적인 인상을 줄까 조심하고, 다른 사람에게 모르는 것을 가르쳐 줄 때 창피함을 갖지 않게 신경쓰는 것에는 남녀간 차이가 없었다.

남자가 지배하기 대화방식을 선호하고 여자가 배려하기 대화방식을 선호하는 성에 따른 차이는 다음의 관찰 사례에 잘 나타난다.

사례 1 : “점심시간이 와서 남자 선배와 친구들과 한자리에 모였을 때 남자선배는 ‘밥먹자’라고 명령조의 어투로 말했다. 그러나 여자선배들은 ‘배고프지 않니?’라며 우리의 의견을 물어보았다. 남자는 명령조의 말을 여자는 권유형의 말을 잘 사용한다.”

사례 2 : “남자친구들은 숙제를 부탁할 때 ‘야, 내 숙제 좀 해라’ 이렇게 명령어조로 툭 내뱉지만 여자친구들은 ‘숙제 좀 보여 주면 안될까?’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며 말을 한다.”



<표 8> 지배하기와 배려하기에서의 성차이  
(남자 N=388, 여자 N=320)

대화 방식	구체적 상황	평균 (M)		표준 편차 (SD)	t 값
		남	여		
지배하기 방식	대화할 때 상대방이 나를 지배하려는 게 아닌가 신경을 쓴다	남	2.74	.88	-1.52
		여	2.84	.84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는 가능한 어려운 말을 써서 제압한다.	남	3.29	.83	-5.55***
		여	3.59	.59	
	대화할 때 상대방을 응시하지 않는다	남	2.82	.83	-3.71***
		여	3.05	.80	
내 말이 남의 비위를 거스르는 것에 상관치 않는다	남	2.09	.75	-5.09***	
	여	3.49	.65		
다른 사람에게 대화할 때 침묵을 이용한다	남	3.20	.84	1.93	
	여	2.50	.89		
배려하기 방식	대화할 때 상대방이 나에게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신경 쓴다	남	2.31	.78	3.26***
		여	1.91	.66	
	대화할 때 상대방에게 공격적인 인상을 줄까 조심한다	남	1.90	.77	1.48
		여	2.23	.73	
	다른 사람에게 모르는 것을 가르쳐 줄 때 상대방이 창피함을 갖지 않도록 신경쓴다	남	2.63	.89	1.47
		여	1.82	.65	

\*\*\*p<.001

5) 능력의 과시와 친밀감의 표현 방식에서의 성차이

남녀 모두는 대화시 능력을 과시하는 대화 방식보다는 친밀감을 표현하는 방식을 더 선호하였다<표 9>.

<표 9> 능력의 과시와 친밀감의 표현 방식에서의 차이

	사례수 (N)	평균 (M)	표준편차 (SD)	paired t값
능력의 과시 방식	708	2.74	.48	5.54***
친밀감의 표현 방식	708	2.64	.38	

\*\*\*p<.001

남녀간의 차이는 <표 10>에서 보듯이 남자는 여자보다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친절히 말하였고, 대화할 때 자신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 과시하기 좋아하였다. 여자는 남자보다 대화할 때 상대방이 나와 가까워지고 싶어하는지에 관심을 두었고, 싸운 사람과는 친구가 되기 어려우므로 말다툼을 피하였다. 이런 결과들은 Tannen(1990)의 주장과 일치하였다.

<표 10> 능력의 과시와 친밀감의 표현에서의 성차이  
(남자 N=388, 여자 N=320)

대화 방식	구체적 상황	평균 (M)		표준 편차 (SD)	t 값
		남	여		
능력의 과시 방식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말하는 것은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이다	남	3.38	.77	-4.67***
		여	3.62	.62	
	대화할 때 내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 과시하기 좋아한다	남	3.10	.83	-3.86***
		여	3.33	.72	
	대화시 남들이 모르는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과시하기 좋아한다.	남	2.68	.83	-.67
		여	2.72	.77	
	대화시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기 좋아한다	남	2.76	.83	-1.85
		여	2.87	.79	
	친한 친구와 오랫동안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남	2.25	.82	.90
		여	2.19	.86	
	대화시 풍부한 유머로 모임에서 중심적 인물이 되고 싶다	남	2.21	.87	2.51*
		여	2.09	.79	
대화시 남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을 좋아한다.	남	2.57	.82	-.40	
	여	2.60	.86		
친밀감 표현 방식	대화시 자신을 남 앞에 내세우기 싫어한다.	남	2.43	.76	-1.05
		여	2.48	.73	
	대화하는 집단에서 두드러지는 동료를 싫어한다	남	2.81	.88	.38
		여	2.79	.78	
	대화시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갖고 있으면 숨기고 싶다	여	3.22	.65	-5.21***
		여	2.58	.90	
	꼭 할 말이 없어도 관심을 보이기 위해 말을 걸 때가 많다	남	2.34	.83	.17
		여	2.33	.70	
	대화할 때 상대방이 나와 가까워지고 싶어하는지에 관심을 둔다	남	2.44	.79	2.17*
		여	2.31	.72	
	싸운 사람과는 친구가 되기 어려우므로 말다툼을 피한다	남	2.87	.94	2.50*
		여	2.70	.90	
친해지고 싶어 대화한다	남	2.65	.93	1.06	
	여	2.58	.90		

\*<.05, \*\*\*<.001

Tannen(1990)의 주장과 달리 남녀간에 차이가 없는 상황도 많았다. Tannen(1990)에 따르면 남자들은 여자보다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과시하기 좋아하고,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기 좋아하며, 남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을 좋아하고, 오랫동안 소식을 전하지 않아도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런 상황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Tannen(1990)이 주장하듯이 여자들이 남자보다 자신을 남 앞에 내세우기 싫어하며 집단에서 두드러지는 동료를 싫어하고, 친해지고 싶어 대화하며, 꼭 할 말이 없어도 관심을 보이

기 위해 말을 걸 때가 많다고 한 것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nnen(1990)이 남성의 대화 방식이라고 하는 상황이 여성에게 나타나고 여성의 대화방식이라고 하는 상황이 남성에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Tannen(1990)은 남자들이 여자보다 유머로 중심적 인물이 되고 싶어하며 여자들이 남자보다 정보를 숨기고 싶어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남자들이 여자보다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갖고 있으면 숨기고 싶어하고, 여자들이 남자보다 대화시 풍부한 유머로 모임에서 중심적 인물이 되고 싶어하였다. 이런 연구결과의 차이는 남자들이 경쟁의식이 높아 정보 공유를 회피하고, 여자들은 정보를 공유하여 친밀감을 높이고 싶어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남자들이 주로 능력을 과시하는 대화방식을 선호하고 여자들은 친밀감을 표현하는 대화 방식을 선택하는 행태의 차이는 다음의 관찰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

사례 1 : “컴퓨터 사용에 모르는 게 있어서 남자 선배에게 물었더니 이해할 수 없는 전문 용어를 섞어가며 가르쳐 주었다. 이해했냐고 물었을 때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냥 이해했다고 말해버렸다. 얼마 후 여자 선배에게 컴퓨터 문제를 상의했더니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어 설명해 주었다. 남자선배는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 했지만 여자선배는 그렇지 않았다”

사례 2 : “남자들은 대화 도중 욕설을 많이 사용한다. 여학생들끼리는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호칭이나 대화 도중 욕설을 하는 경우가 드문 반면 남학생들은 친구 이름을 부를 때나 대화시 거의 대부분 듣기 거북한 욕설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남자들 간에는 욕설로 상대방을 낮추어 경쟁심을 표현하는 듯하나 여자는 표준어를 많이 써서 부드럽게 말한다.”

5) 공적 대화와 사적 대화 방식에서의 성차이

<표 11>에서 보듯이 남녀는 모두 공적인 대화 방식보다는 사적인 대화 방식을 더 선호하였다.

남녀의 차이를 보면 남자는 여자보다 Tannen(1990)의 연구에서처럼 공적인 대화 방식을 선호하는 상황이 많았다.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것을 편하게 여기고 자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잡담이나 수다를 불필요하다고 여기고 친구에게 비밀을 이야기 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표 12>.

<표 11> 공적 대화와 사적 대화 방식에서의 차이

	사례수 (N)	평균 (M)	표준편차 (SD)	paired t값
공적 대화 방식	708	2.85	.40	13.04***
사적 대화 방식	708	2.55	.50	

\*\*\*p<.001

<표 12> 공적 대화와 사적 대화에서의 성차이

(남자 N=388, 여자 N=320)

대화 방식	구체적 상황	평균 (M)	표준편차 (SD)	t 값
공적 대화 방식	사적인 자리보다는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것이 편안하다	남	2.91 .85	-6.38***
		여	3.29 .70	
	공식적인 대화석에서 자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좋아한다	남	2.53 .81	-5.80***
		여	2.88 .77	
	대화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지 못할까봐 두렵다	남	2.75 .94	-.13
		여	2.76 .87	
	잡담이나 수다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남	3.08 .84	-6.43***
		여	3.47 .76	
	용건이 없으면 친구에게 전화하지 않는다	남	2.61 .91	-1.66
		여	2.73 .91	
친구에게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남	2.91 .87	-2.64**	
	여	3.09 .87		
대화시 감정을 표현하기보다 억제하는 편이다	남	2.23 .84	-2.21*	
	여	2.37 .81		
대화시 사회적 이슈에 대해 논쟁하기 좋아한다	남	3.10 .90	.58	
	여	3.06 .84		
사적 대화 방식	공론보다 사담이나 잡담을 좋아한다	남	2.27 .84	5.69***
		여	1.93 .71	
	친구와 대화시 사소한 문제까지 의논한다	남	2.64 .90	2.35*
		여	2.48 .85	
	대화시 주변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할까봐 두렵다	남	2.87 .87	-2.02*
		여	3.00 .81	
	대화시 비밀을 터놓고 말할 수 없으면 친구가 아니다	남	2.50 1.00	-2.91**
		여	2.71 .91	

\*p<.05, \*\*p<.01, \*\*\*p<.001

Tannen(1990)이 여성적인 대화방식이라고 주장하는 사적인 대화 상황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은 선호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남자들이 여자보다 주변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더 알고 싶어하였고, 비밀을 터놓고 말할 수 없으면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여자들은 Tannen(1990)의 주장처럼 남자보다 사담이나 잡담을 공론보다 좋아하였고, 친구와 사소한 문제까지 의논하였다. 그리고 공적인 대화방식을 선호하는 상황은 없었다.

Tannen은 여자는 공적 영역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것이 남자보다 적다고 했으나 남녀간에 이런 차이가 없었고 사회적 이슈에 대해 논쟁하기 좋아하는 것에도 성차이가 없었다. 용건이 없어도 친구에게 전화하는 것은 여성이 많이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남녀간 차이가 없었다.

대화시 나타나는 남녀의 공적 대화와 사적 대화에 대한 차이는 다음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례 1 : “남성은 대화의 주제가 한정적인데 여성은 매우 다양하다. 예전에 남자친구들과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남자친구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학교생활에 관한 것, 미래에 관한 것 등 매우 한정적이었다. 반

면 내가 여고동창생을 만날 때면 연예인 이야기에 서부터 친구의 애인에 관한 이야기 등 이야기가 그칠 줄 모르고 이어진다.”

사례 2 : “남자는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할 때 ‘어디니? 뭐해? 알았다’ 정도를 묻는 것이 끝이다. 여자들은 전화를 하면서 온갖 이야기를 다한다. 여자는 전화를 수다의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남자들은 정보의 전달 수단으로 사용한다.”

6) 언어 의미에서의 성차이

같은 언어도 성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표 13>. 미안하다는 말을 잘못이 없어도 신경을 쓰게 했을 때 사용한다는 것에 여자가 남자보다 더 그렇다고 했다. 여자는 ‘미안해’라는 말을 대화 도중에 잘 사용하는데 비해 남자는 자신의 행동이나 언행이 잘못되었을 때만 사용한다는 Gray(1992)의 주장하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였다.

그러나 의견에 동의할 때만 예라고 하는 것과 듣고 있다는 표시로 예라고 말하는 것에는 남녀간에 차이가 없었다. 여자는 듣고 있다는 표시로 ‘예’를 쓰지만 남자는 동의할 때만 ‘예’라는 말을 쓴다고 주장하는 Tannen(1990)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았다. 한국어에서 ‘예’의 쓰임이 영어의 ‘yes’보다 다양하게 사용되는 문화적 차이 때문에 성차이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13> 언어 의미에서의 성차이 (남자 N=388, 여자 N=320)

구체적 상황	평균 (M)	표준편차 (SD)	t 값
잘못이 없어도 신경을 쓰게 했을 때 미안하다는 말을 사용한다	남 2.22	.82	2.36*
	여 2.08	.80	
듣고 있다는 표시로 예라고 말할 때가 있다	남 2.10	.77	-.29
	여 2.11	.80	
상대방 의견에 동의할 때만 예라고 한다	남 2.82	.75	.22
	여 2.81	.76	

\*p<.05

남자는 언어 표현시 직접적 표현을 주로 하지만 여자의 경우는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의미 사용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Tannen, 1986, 1990; Gray, 1992, 1994). 이런 경향은 다음의 관찰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례 1: “내가 집안 청소를 하면서 소파에 앉아있는 오빠에게 ‘우리 집은 항상 엉망이야!’라고 말할 때 오빠는 ‘어제는 깨끗했어’라고 말한다. 나는 도움받기를 원해서 하는 말인데 오빠는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듣는다.”

사례 2 : “날씨가 몹시 쌀쌀한 날 옆에 있는 남자친구에게 ‘춥지 않아?’라고 물어보니 ‘춥지 않다’고 대답하고

자기 할 일을 하였다. 내가 춥지 않느냐고 물어본 것은 나에게도 춥지 않느냐고 물어본 후 옷을 벗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는데 남자친구는 내 말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했다.”

<표 14> 남성적 대화방식 및 여성적 대화방식과 관련된 변인 (N=708, 남자:388, 여자:320)

관련 변인	범위	남	여	전체	
		M(SD)	M(SD)	M(SD)	Scheffe
성역할 태도	매우 남성적	119.61 (10.03)	122.22 (10.05)	120.30 (10.04)	a
	약간 남성적	121.75 (6.95)	126.65 (7.01)	123.86 (7.37)	b
	약간 여성적	125.00 (5.67)	129.16 (6.63)	127.04 (6.51)	c
	매우 여성적	127.06 (7.58)	130.03 (7.17)	128.60 (7.50)	c
	계	123.4 (7.65)	128.13 (7.41)	125.54 (7.90)	
	F	15.49***	9.14***	29.09***	
학년	1학년	124.22 (7.15)	128.46 (7.19)	125.95 (7.43)	
	2학년	123.05 (8.50)	127.94 (7.30)	125.63 (8.24)	
	3학년	123.37 (5.85)	127.40 (8.46)	125.17 (7.38)	
	4학년	121.00 (9.61)	128.70 (6.96)	124.29 (9.35)	
	계	123.41 (7.65)	128.13 (7.41)	125.54 (7.90)	
	F	2.24	.34	1.03	
전공 영역	인문계열	123.43 (7.44)	127.81 (8.20)	125.39 (8.07)	a
	자연계열	123.79 (7.21)	128.55 (6.93)	125.98 (7.46)	a
	예체능계열	119.85 (11.31)	125.00 (8.71)	121.88 (10.26)	b
	계	123.41 (7.65)	128.13 (7.41)	125.54 (7.90)	
	F	3.15*	1.94	5.38**	

\*p<.05, \*\*p<.001, \*\*\*p<.0001

3. 남성적 대화방식 및 여성적 대화방식과 관련된 변인

Tannen(1990)이 남성적 대화방식, 여성적 방식이라고 하는 성차이와 관련있는 변인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성역할태도가 남성적일수록 남성적인 대화방식을 사용하고 여성적일수록 여성적인 대화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4>. 이는 Tannen(1990), 최용선(200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현재 성역할태도는 여성의 역할이 가정에만 한정되지 않고 사회로 확장되고 있고, 남성의 역할도 맞벌이 증가로 가정내에서의 역할이 증가되고 있어 과거의 고정적 역할관념에서 벗어

나 양성성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남녀간 대화방식도 성역할 태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

연령은 송경숙(2002)의 연구에서와는 다르게 관련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조사대상이 대학 재학생으로 연령대가 비교적 동질적이어서 학년에 따른 근소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과 관련있는 전공에 따라서는 대화방식에 차이가 있어 예체능계열 학생이 인문사회와 자연계열 학생과 차이를 보였다. 자기표현이 보다 직접적이고 개성이 강한 예체능계열 학생이 비예체능계열 학생보다 남성적 대화방식을 사용하였다. 대화방식은 사회문화적 환경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V. 결론 및 연구의 제한점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생물학적 문화적 차이를 갖고 성장하여 서로 다른 사고를 하고 서로 다른 대화방식을 갖게 된다는 관점에서 남녀는 대화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원만한 이성교제와 만족스러운 결혼 준비를 위해 성에 따른 대화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되는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차이를 조사하였다. 연구방법은 양적 설문조사와 질적 사례 조사를 병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해보면 전반적으로 조사대상자들은 Tannen(1986, 1990), Pease & Pease(2000, 2002), Gray(1994)의 주장처럼 남녀는 사고영역에서 대체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방식에서도 남녀간에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사고영역이 다르다고 인식하는 것보다 대화에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유의하게 낮아 대화방식의 차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대화방식에 대해 남녀 모두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의 대화보다는 들어주기 방식을, 독립성을 중시하는 방식의 대화보다는 연관성을 중시하는 방식의 대화를, 상대방을 지배하는 대화방식보다는 배려하는 방식을, 능력을 과시하는 방식의 대화보다는 친밀감을 표현하는 방식의 대화를, 공격적인 대화방식보다는 사적인 대화방식을 선호하였다. 그리고 같은 용어도 의미를 다르게 사용하였다.

대화방식에서의 남녀의 차이는 Tannen(1986, 1990), Gray(1992, 1994)의 주장처럼 남자는 여자보다 독립성을 중시하는 대화방식을 선호하였고, 지배하는 방식의 대화를 선호하였으며 능력을 과시하는 대화방식과 공격 대화방식을 선호하였다. 여자는 남자보다 들어주기 방식, 연관성을 중시하는 대화방식, 배려하는 대화방식, 친밀감을 표현하는 대화방식, 사적인 대화방식을 선호하였다. 대화방식이 성에 따라 여러 차원에서 다르게 나타나 대화시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만족스런 남녀의 의사소통을 위해 결혼준비교육과 이성교제 교육에서 반드시 대

의 성차이가 다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여성의 대화방식은 전체가 선호하는 대화방식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여성이 남성의 대화방식을 이해하는 것 못지 않게 남성이 여성의 대화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사회적 적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화방식의 각 차원에서는 대체로 Tannen(1986, 1990)과 Gray(1992, 1994)가 주장하는 것과 일치하였지만 구체적 상황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는 결과도 있었다. 남자는 여자보다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해주길 좋아하지 않았고 상대가 칭하지 않아도 조언해주길 좋아하지 않았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보다 누군가로부터 지시받는 것을 싫어하는 것, 상대방이 나를 지배하려는 게 아닌가에 신경 쓰는 것, 다른 사람에게 대항할 때 침묵을 이용하는 것, 남이 모르는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과시하기 좋아하는 것,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기 좋아하는 것, 오랫동안 소식을 전하지 않아도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남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을 좋아하는 것,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용건이 없으면 친구에게 전화하지 않는 것에서 더 그렇다는 응답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여자들은 대답하기보다 질문하기 좋아하는 것, 상대방에게 공격적 인상을 줄까 더 조심하는 것, 모르는 것을 가르쳐 줄 때 상대방이 창피함을 갖지 않도록 신경쓰는 것, 자신을 남 앞에 내세우기 싫어하는 것, 집단에서 두드러지는 동료를 싫어하는 것, 친해지고 싶어 대화하는 것, 꼭 할 말이 없어도 관심을 보이기 위해 말을 거는 것에서 남자들보다 더 그렇다는 응답을 보이지 않았다.

Tannen(1986, 1990) 및 Gray(1992, 1994)의 주장과는 반대로 나타난 결과도 있었는데, 남이 모르는 정보를 갖고 있으면 숨기고 싶어하는 경향은 여자들보다 남자에게서 많았고, 남자보다 여자가 풍부한 유머로 중심적 인물이 되고 싶어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변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대화시 비밀을 터놓고 말할 수 없으면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그러하였다.

이런 결과의 차이는 Tannen(1986, 1990), 존 그레이(1992, 1994) 연구들이 부부를 대상으로 상담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미혼자들과 차이를 보인 것으로 생각되고, 연구 시기도 선행연구들은 80-90년대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개인주의적, 성평등적 가치 지향이 더 심화된 현재와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겸양을 중시하는 동양적 대화방식과 적극성을 강조하는 서양적 대화방식의 문화 차이에 의해서도 불일치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며, 대학생 집단이 갖고 있는 경쟁적이고 자기주장적이며 성취지향적인 성향이 이런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특히 여성은 그 동안 여성성으로 피해를 받아왔던 반작용으로 남성적 대화방식을 더 선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남성적인 대화방식이 오히려 여성에게서 나타나기도 하겠다고 보여진다.

이런 차이에 대한 고려없이 Tannen(1986, 1990)이나 Gray(1992, 1994) 등의 연구를 그대로 국내의 미혼자에게 적용 한다면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Tannen(1986, 1990)이나 Gray(1992, 1994)의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상황에 근거한 대화방식 연구가 보다 심층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조사에 의하면 Tannen(1990)이 말하는 남성적 대화방식, 여성적 대화방식은 성역할 태도와 전공분야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았다. 현재 성역할태도는 양성성을 지향하고 있고 사회적 역할변화와 요구에 따라 가변적이고 선택적인 것으로 변하고 있다. 대화방식은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서뿐 아니라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생물학적 특성과 더불어 사회적 역할, 환경의 변이에 따라서도 대화에 차이가 유발된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자신과 타인의 언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남녀간에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의 의사소통 교육은 자기표현과 경청이라는 기본적인 전략을 교육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왔다. 앞으로의 의사소통 교육에서는 성차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대화방식에서의 성차이를 이해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교육에 사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의의를 가지며 기술된 사례들은 현실감 있는 교육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미혼의 남녀 대학생들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교육의 범위를 넓혀 부부관계 교육 프로그램에 응용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도 도시에 거주하는 자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농촌 거주자도 포함하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 접수일 : 2004년 09월 13일

□ 심사일 : 2004년 09월 21일

□ 심사완료일 : 2004년 12월 15일

#### 【참 고 문 헌】

강주현(1995). **계집팔자 상팔자: 우리말에 나타난 성차별 구조**. 서울: 고려원.  
 김규현·서경희(1996). 대화조직상의 성별차이: 평가와 이해확인을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4(2), 77-111.  
 김선우·김태현(2003). 남녀 노인의 의사소통 행동과 결혼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6), 141-155.  
 김우달(1999). **언어사용의 성차이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민현식(1996). 국어의 성별어(genderlect)연구. **사회언어학** 4(2), 3-29.

방현주·이기숙(2002).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통한 결혼 초기 부부의 의사소통 능력 증진에 관한 연구-유아기 가족의 부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0(11), 39-54.  
 송경숙(1996). 영어와 한국어 대화에서 성(性, gender)의 역학: 토론과 논쟁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차이. **사회언어학**, 4(2), 113-142.  
 유정곤(1999). **언어사용의 성차이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재림·옥선화·이경희(2002). 이성교제에서의 남녀차이 이해 증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5), 37-49.  
 임승락(1998). **부부간 의사소통 행동과 결혼생활만족도: 성차, 요구입장 차이 및 성격 특성의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정빈·정혜성(1997). **성역할과 여성**. 서울: 학지사.  
 정현숙(2004). "결혼전교육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91-101.  
 최용선(2001). 언어와 성에 관한 연구의 비평적 개관. **사회언어학**, 9(2), 157-186.  
 한국여성개발원(1996). **성차별적 언어 사용에 관한 연구: '96연구보고서**. 서울:한국여성개발원.  
 Bem, B.I.(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Cameron, D. (1985). *Feminism and Linguistic Theory*. London: Macmillan.  
 Clinebell, H. J.(1991). *Wellbeing*. Sanfrancisco, California: Harper.  
 Fisher, J.(1958). Social influences on the choice of a linguistic variance. *Word*, 14, 47-56.  
 Gray, J.(1992). *Men are from Mars, Women are from Venus*. 김경숙 역(1998).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서울: 친구미디어.  
 Gray, J.(1994). *What Your Mother Couldn't Tell You & Your Fatehr Didn't Know*. 서현정 역(2000). **여자는 차마 말 못하고 남자는 전혀 모르는 것들**. 서울: 프리미엄북스.  
 Jespersen, O.(1922). *Language: Its Nature, Development, and Origin*.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Key, M. R. (1975). *Male/Female Language*. Metuchen, New Jersey: Scarecrow Press.  
 Kuett, P.C.(1981). *Toward An Androgynous Style in Freshman Writing*,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Florida State University.  
 Labov, W. (1966). *The Social Stratification of English in New York City*. Washington DC: 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  
 Labov, W. (1972). *Sociolinguistic Pattern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Lakoff, R.(1975). *Language and Woman's Place*. New York:

Harper & Row.

- Lu, Q.(1993). *Perceptions of Women Trial Lawyers' Language Style in Courtroom Interaction: A Descriptive Study*  
Unpublished Ph.D. Dessertation, University of San Francisco.
- Milroy, L.(1980). *Language and Social Networks*. Oxford:Basil Blackwell.
- O'Barr, W. M. & Atkins, B. K.(1980). Women's language or powerless language?. In S. McConnell-Ginet, R. Borker, & N. Furman (Eds.). *Women and Language in Literature and Society*. New York: Praeger.
- Pease, Barbara & Pease, Allen(2000). *Why Men Don't Listen & Women Can't Read Maps: How We're Different and What to Do About It*. 이종인 역(2004). *말을 듣지 않는 남자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자*. 서울: 가야넷.
- Pease, Barbara & Pease, Allen(2002). *Why Men Lie & Why Women Cry*. 이종인 역 (2003). *거짓말을 하는 남자 눈물을 흘리는 여자*. 서울: 가야넷.
- Tannen, Deborah(1986). *That's Not What I Meant: How conversational Style Makes or Breaks Relationships*. 신 우인 역(1993). *말 잘하는 남자? 말 통하는 여자!*. 서울: 도서출판 풀빛.
- Tannen, Deborah(1990). *You Just Don't Understand: Women and Men in Conversation*. 정명진 역(2002). *남자를 토라지게하는 말, 여자를 화나게 하는 말*. 서울: 한·언.